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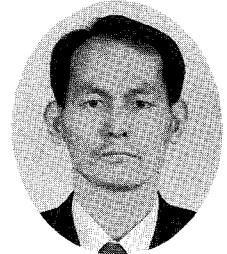
□ 건강한 사람은 계란 콜레스테롤 영향이 거의 없음

근년 미국에서의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많은 의학자 역시 콜레스테롤은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의 영양소이며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이나 지방의 소화에도 필요한 담즙산의 원료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식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계란소비가 1970년대 초에는 220개로 크게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산란계농가가 폐업하는 비극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의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계란을 먹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값의 변화를 관찰할 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부분의 논문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2개 정도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즉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합성되며 음식물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에 기초하여 미국의 계란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은 1인당 연간 260개까지 도달하는 증가추세에 있고,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일부러 콜레스테롤을 첨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면서, 일본양계협회 역시 관련논문을 수집한 결과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9개)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논문(45개)이 많으며 학술논문이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음을 알렸다.

구체적으로는 45개의 보고서중 10개는 사람에게 많은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값은 변하지 않았으며,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환자가 포함된 시험에서는 보통정도의 계란섭취에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혈중 콜레스테롤 값이 증가했다는 9개의 논문 중 4개의 보고서는 건강한 사람이 1일 7개의 계란을 섭취한 경우와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1일 2개의 계란을 먹게 한 경우이며,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먹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5개의 경우는 콜레스테롤에 민감한 체질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일본 양계협회 발체).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표1. 2002년도 산란계 주요성적

(기술제휴사 제공)

품 종	육성율	시산일	151~210일령					210일령	
			산란율	평균난중	산란일량	섭취량	요구율	난각강도	신선도
데칼브화이트	100%	147일	92.4%	54.7g	50.6g	83.6g	1.65	4.16	88.7
보반스나	100%	142일	94.9%	53.4g	50.7g	89.5g	1.77	3.78	83.5
쥬리아	100%	146일	93.2%	55.7g	51.9g	89.3g	1.72	4.08	89.2
하이 라인마리아	99%	157일	81.7%	51.5g	42.1g	75.8g	1.80	3.94	91.8
하이 라인로라	100%	141일	91.1%	54.3g	49.5g	93.4g	1.89	3.86	89.7
이사화이트	100%	154일	83.8%	54.1g	45.4g	85.4g	1.88	4.40	92.8
폴리스브리운	100%	145일	94.7%	58.5g	55.4g	93.4g	1.69	4.10	92.0
이사브리운	100%	141일	94.7%	58.6g	55.5g	93.1g	1.68	4.39	84.8

표2.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체)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17	122	130	130	125	70	890t



육 계

□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가금육 수입금조치 해제

지난해 9월18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레인으로 인하여 90일간 일시적인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졌던 버지니아주와 뉴욕주는 지금까지 조류 인플레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미국 가축위생국의 통지와 일본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인정받아 2003년 1월8일과 9일부로 수입금지를 해제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월14일까지 발생되지 않는다면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는 2001년 6월 중국산 오리에서 인플레인지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안전성이 인정된 닭과 칠면조 및 가금류의 알을 제외한 오리와 거위고기 등의 가금류는 추가적인 위험감소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인 수입금지가 계속되어왔으나, 중국과의 가금육에 대한 가축위생조건이 협의되어 오리와 거위에 대한 가축위생조건을 적용하여 1월10일 이후의 도축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위험감소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분간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축산부위생과 자료발췌).

□ 브로일러 생산 1위 지역 -이와데켄(岩手縣)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1년도의 브로일러 출하금액이 가장 많은 도별(都道府縣) 순위 중 1위는 이와데켄으로 450억엔(4,500억원)이고, 2위는 미야자끼켄(宮崎縣) 417억엔, 3위 가고시마켄(兒島縣) 393억엔으로 나타났다. 브로일러가 농업생산물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도 역시 1위 16.2%, 2위 13.5%, 3위 9.8%로 출하금액과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한편, 관세국이 발표한 2002년 1월 10월까지의 가금육류의 수입누계는 2001년보다 7.2% 증가하여 닭고기조제품 22.9%, 가금육 37.2%, 기타 가금육조제품 38.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생산단계에서의 HACCP 방식도입

농림수산성에서는 안전한 식품원재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축산의 생산현장에서 HACCP 시스템에 기초한 위생관리체제의 정비에 대하여 검토해온 결과 「가축의 생산단계에 대한 위생 지침」을 마무리하여 각 지역의 위생관리 담당부서와 가축보건소(가축위생연구소)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작성된 지침은 전국적인 농장실태조사와 오염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HACCP시스템 도입을 기본으로 한 각 농장별 입지조건이나 축사구조, 사육형태의 특성에 따른 「실시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지침으로 할 내용을 각 축종별로 모아 정리한 것이다.

표3. 10월 닭고기 수입가격

(도매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뼈포함넓적 다리고기	미 국	294	234	넓적다리고기	브라질	313	250
	태 국	388	368		태 국	300	238
	브라질	350	-		중 국	240	239
가슴고기	태 국	325	270	꼬치고기	태 국	560	440
	중 국	315	259		중 국	380	413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